2021년 9월 5일 제 369호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주 일 예 배 Worship Service

성 찬 주 일

오전 11시 —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9월의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다같이
성 찬 식	신앙고백	다같이
	고전 11:23-28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찬 228)	
	특송(김은희자매) - 하나님의 은혜	
	결단의기도	
찬 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찬 305)	다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크고 놀라운 사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18:24-28	다같이
특별찬양	기도	샤마임찬양대
말씀선포	"the Way of God"	김원재
찬양과결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 304)	다같이
축 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알 립 니 다 News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성찬주일** 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9월의 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 **새가족모임**이 오늘 12시 30분에 지하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5. **삶공부**가 9월부터 시작합니다. 안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9월부터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로 확대됩니다.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병행이 됩니다.
7.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8.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 회 자 칼 럼 Pastor's column

엔학고레

어제(9/4)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회는 Back to School 새벽기도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아이들을 축복하며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담당사역자를 통해 잘 준비된 세레모니를 진행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 가정씩 앞으로 나와 안수기도 받는 시간은 뜻깊게 진행되었습니다. 새해맞이예배 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과 더불어 BTS 새벽기도회 파송식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리 한울림교회의 전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엔학고레"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사사기 15장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이 적들을 물리치고 타는 목마름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을 샘을 주셨고,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은 기운을 차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엔학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보면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바로 우리가 새롭게 기운을 얻는 엔학고레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교회의 사역과 행사가 성도들의 참여가 떨어질 때 실망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지 않거나,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실망하더라고 계획하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독려할 것입니다. 실망하고 상심하는 자리가 오히려 저에게 엔학고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인해 참여도는 떨어지고, 저의 부족함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일어나 기운을 차리고 회복되는 엔학고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계속 엔학고레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